2026.10.13

롯데손해보험㈜의 신용등급 '긍정적 검토' 대상 등록: IFSR A-(N) → A-↑

송미정 금융1실 수석연구원
02-368-5591
mjsong@korearatings.com

정문영 금융1실 전문위원
02-368-5643
mychung@korearatings.com

김태현 금융1실 실장
02-368-5319
thkim@korearatings.com

한국기업평가(이하 'KR')는 2026년 10월 13일자로 롯데손해보험㈜(이하 '동사')의 IFSR, 무보증후순위사채, 신종자본증권 신용등급을 각각 A-, BBB+, BBB로 유지하고, 긍정적 검토(Positive Review) 대상에 등록한다.

[표 1] 등급 조정 내역

회사명	평가대상	종전		금번	
		등급	Outlook	등급	Outlook
롯데손해보험㈜	IFSR	A-	부정적	**A-**	**긍정적 검토**
롯데손해보험㈜	후순위사채	BBB+	부정적	**BBB+**	**긍정적 검토**
롯데손해보험㈜	신종자본증권	BBB	부정적	**BBB**	**긍정적 검토**

1. 등급 검토 대상 등록 사유(Key Rating Rationale)

신한금융지주는 2026년 10월 13일 동사의 최대주주인 빅튜라 유한회사가 보유한 동사 보통주 전량(지분율 77.04%)을 6,933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취득일자는 감독당국의 인·허가 등 관련 일정 진행에 따라 추후 확정될 예정이며, 인수 완료시 동사는 신한금융그룹에 편입된다.

[표 2] 주식매매 관련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매도인	빅튜라 유한회사
매수인	㈜신한금융지주회사
대상주식	롯데손해보험 보통주 239,082,287주(77.04%)
매매대금	6,933억원
계약체결일	2026년 10월 13일

신한금융지주로의 대주주 변경은 동사 신용도에 긍정적이다. 계열 지원가능성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사는 금융당국의 경영개선요구 조치에 따라 경영개선계획(2026년 5월 조건부 승인)을 이행 중이며, 2026년 6월말 기본자본 K-ICS 비율이 -5%로 2027년 도입 예정인 규제기준(50%)을 크게 하회하는 등 자본확충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신한금융지주의 지분 인수가 완료되어 동사가 신한금융그룹의 자회사로 편입될 경우 유상증자 등 그룹 차원의 자본확충을 통해 자본적정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룹의 지원능력과 지원의지를 감안한 계열 지원가능성을 신용등급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금번 인수가 신한금융지주 신용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롯데손해보험의 사업경쟁력 및 자본적정성 개선을 위한 추가 출자나, 잔여지분 추가 인수 여부와 관련하여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러나 신한금융지주의 2026년 상반기 연결 기준 순이익이 3.4조원에 달하며, 주력계열사인 신한은행(별도 기준 2026년 상반기 순이익 2.1조원)을 비롯, 신한라이프와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등 주요 계열사의 이익창출력과 배당여력이 우수한 수준으로 인수 관련 재무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롯데손해보험 인수로 비은행부문의 사업포트폴리오 다각화 수준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나 사업적 및 재무적 시너지 발현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의사항]

(1) 한국기업평가㈜(이하 '당사')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은 특정 금융상품, 금융계약, 발행자 등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관한 분석 시점에서의 당사의 의견입니다. 또한, 당사가 제공하는 보고서 등의 제반 연구자료(이하 '간행물')는 상기 특정 금융상품, 금융계약, 발행자 등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관한 당사 또는 필자 개인의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신용위험을 제외한 다른 위험(금리나 환율변동 등에 따른 시장가치 변동위험, 해당 증권의 유동성위험, 내부절차나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영위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등급 및 간행물에 포함된 당사의 의견은 현재 또는 과거 사실에 관한 진술이 아니며, 당사 고유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대상의 미래 상환능력 등에 대해 예측한 독자적인 견해로서, 이러한 예측정보는 실제 결과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환경변화 및 당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신용등급 산출 및 간행물 발간(이하 '신용평가업무 등')에 이용되는 모든 정보는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함께 각종 공시자료 등의 자료원으로부터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며, 당사는 제3자 요청 신용평가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등급 산출 시 제출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있지 않으며 중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으로부터 수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 및 이들 대리인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전제 하에 신용평가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신용평가업무 등 과정에서 이용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실사나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정보의 오류 및 사기, 허위에 따른 결과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당사는 신용평가업무 등 과정에서 이용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분석자•분석도구 또는 기타요인에 의한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사는 신용등급 및 간행물의 정확성 및 완전성을 보증하거나 확약하지 않습니다. 당사 간행물의 모든 정보들은 신용평가업무 등에 필요한 주요한 판단 근거로서 제시된 것으로 평가대상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열된 것은 아니며,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 이상 당사 신용등급 및 간행물 상의 정보이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및 결과에 대해서도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4) 당사는 금융상품의 매매와 관련한 조언을 제공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특정 유가증권의 매수, 매도 혹은 보유를 권유하는 정보가 아니며 시장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정보도 아닙니다. 당사의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그 내용으로 이용자의 투자결정을 대신할 수 없고 금융상품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들은 스스로 투자대상의 위험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각자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만 합니다. 특히,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은 시장 전문기관을 일차적인 이용대상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개인투자자에 의한 이용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아 이를 이용하여 개인투자자 스스로 투자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외부전문기관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공시되지 않은 신용등급이나 제3자 요청 신용평가에 따라 산출된 신용등급의 경우 신용평가 요청인 이외에는 해당 신용등급을 믿고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5)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의견으로 당사의 공식의견이 아닙니다.

Copyright 2026, Korea Ratings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대표전화: 368-5500 FAX: 368-5353.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의 저작권은 한국기업평가㈜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정보도 당사의 서면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재되거나 복사, 인용(또는 재인용), 배포될 수 없습니다.